

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에서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종 4례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한두희, 안용휘, 정영호, 권성근, 하정훈, 성명훈, 김광현

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(recurrent respiratory papillomatosis; RRP)은 호흡기의 편평상피에 발생하는 증식성 질환으로 소아에 생기는 후두의 신생물 중 가장 흔하다.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, 호흡기 전장을 따라 퍼지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, 또한 수술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재발을 잘하는 난치성 질환이다. 치료 결과에 따라 후두에 심각한 변형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며, 드물기는 하지만 악성변화도 보고되어 있다. Dedo 등에 의하면 244명의 환자 중 1.6%에서 악성변화를 보고하고 있다.

이에 저자들은 1985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병리 조직학적으로 RRP로 진단 받은 241명 중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악성 변화를 보인 4례(1.7%)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

4례 모두 초진단은 후두 유두종이었으며 각각 12개월, 24개월, 7년, 34년 후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다. 이중 1례는 9년 후 우상암종이 발생하였다.

4례 중 3명이 재발의 증거 없이 추적관찰 중이며, 1명이 고식적인 치료로 경과 관찰 중이다.